

슬로우 관광의 탐색적 고찰
-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전명숙*

An Exploratory Study on Slow Tourism
-Based on Jeju Olleh Walking Tour-

Myung-Sook Jeon*

ABSTRACT

The paper examines the prospect of Jeju Olleh walking tour as Slow Tourism as a sustainable alternative tourism strategy. Slow tourism is a new tourism Concept of 21century as one way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mass tourism. Jeju Olleh walking tour is a nature oriented, walking tour, which made a new tour paradigm in Korea recen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to develop the Jeju olleh tour more properly it needs environmental preservation plan, collaborate cooperation between tourist and residents, provide facilities for the tourist needed.

Keywords : Eco Tourism, Sustainable Tourism, Jeju Olleh Walking Tour, Authenticity

I. 서론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겪으며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
며 물질위주의 성장을 이룩해왔다. 그 반면 산업

*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조교수(msjeon, @konyang, ac, kr)

사회의 이면에서 오는 개인주의적인 사회현상,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고도의 정보사회에서 오는 소외감 또는 고립된 군중현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거나 자아성장, 자아계발의 기회가 줄어들어 개인의 인격수양, 자아계발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간성 회복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관광에서도 현대 인류의 공통관심사인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류의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현대인이 자신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며 여유로움 속에서 생각하고 삶을 즐기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관광에서도 대량관광, 단체관광과 같이 일정한 제약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물질문명이나 인공적인 것보다는 되도록 자연환경을 가까이 하며 오감을 통하여 관광객 스스로 체험하는 활동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환경오염, 공해, 인스턴트식품 등에서 야기되는 폐해를 직접 접하면서 건강, 웰빙 또는 웰 다잉, 자연주의, 삶의 질 추구 성향과 맞물려 지친 현대인들이 'fast'에서 'slow'로 자연회귀의 현상을 보이는 생활의 형태가 관광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생활패턴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움과 빠르기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오감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며 습득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가치를 두는 슬로우 패턴인 삶의 형태가 관광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예전의 단순한 형태의 관광이 관광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시대의 변화와 관광객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진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SIT와 같은 관광형태의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관광을 통하여 건강을 다지며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걷기여행은 관광객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자연환경속에서 일상생활을 벗어난 새로운 지역의 탐험, 문화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한국 관광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처분 소득의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주 5일제 근무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한 여가생활의 다양화로 이어져 인간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 여행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재창조를 위한 인간과의 조우과정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써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가생활에 해당하며 산업화 시대의 특징인 빠르게 살기에서 벗어나 느리게 살기를 추구하는 슬로우 라이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회현상은 현대 인류의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로 건강과 행복요소에 필수요소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느리게 살기 운동과 친 환경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는 관광에서도 나타나 건강과 웰빙을 동시에 추구하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관광형태로 등장하여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슬로우관광의 한 성공유형의 본모기를 제시하며 여행자의 여행패턴의 변화까지 영향을 준 제주도 올레투어를 통하여 슬로우 관광의 유래 및 특

성, 한국의 슬로우 관광자원 현상 등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슬로우 관광상품으로써 건기여행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관광동향에 관한 관련자료 및 서적, 신문, 잡지, 인터넷 뉴스 등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슬로우 관광의 개념

제주올레투어는 슬로우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현상에서 파생된 관광개념이며 슬로우 관광의 개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변 자연환경을 음미하면서 관광객 스스로 오감을 통한 체험활동을 중요시한다. 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되도록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을 강조한 관광형태의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느리게’, ‘천천히’, ‘여유있게’ 등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되도록 원형으로 보존하며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관광이라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자연환경에서의 활동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관광, 농촌과 같은 초록색 녹지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녹색관광, 생태계 보존 및 환경의 중요성에 많은 가치를 둔다는 면에서 생태관광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ED)에서 국가별 환경보전 실천과제를 채택하면서 세계환경보전을 위한 관광의 역할을 강조한 개념으로 해당지역의 자원이용, 자연환경과 문화의 보전을 기하면서 관광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방문자의 수를 조절하고 지역주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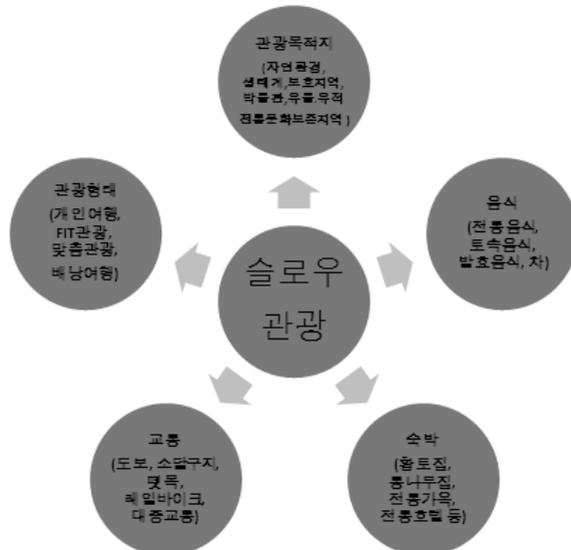
삶의 질향상과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통합적인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주로 소규모의 전통적인 생태자연 관광개발이며 고유성을 중시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전통적인 문화 체험을 중시하는 욕구가 강한 것이 특징이며 관광개발에서 오는 환경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미래의 인류 후손들에게 최대한의 자연환경자원을 잘 보전하여 물려주는 것이 모든 인류의 책임이라는 명제하에 등장한 개념이며 관광자원이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의한 파괴와 오염을 방지한다는 뜻으로 관광자원의 환경및 생태계 보전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생태관광의 목적과도 상통한다. 또한 슬로우관광 개념의 등장은 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Slow Movement(느리기 살기 운동)와 Slow food(충분한 시간을 들여 만든 음식)에서 기인한다. 영국의 산업혁명이후 현재의 지식정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역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경쟁문화에서 오는 압박관념과 긴장감, 소외감, 비인간화, 무한경쟁, 고해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안식처, 돌파구를 모색하게 되었다[4]. 특히 바쁜 사람들을 위한 간편하고 빠른 음식문화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시작된 ‘fast food’에 반대되는 개념인 ‘slow food’가 등장하여 빨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에서 오는 폐해보다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인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는 의식과 여유있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참살이 또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족, 보보스족 등의 등장으로 주거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어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속에서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하고 지역토착문화를 보유한 지

역을 선정한 ‘slow city’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관광에서도 slow tourism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것이다.

〈표 1〉 슬로우 관광과 상관된 관광개념

구분	특징
자연관광 (nature based-tourism)	· 자연환경에서의 활동 통한 위락추구 · 야외감상과 같은 단순의미로 언급되기도 함 · 관광활동이 반드시 관광지 환경보전에 기여하지는 않음
녹색관광 (green tourism)	· 초록색의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의미 · 농촌관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농촌관광 (rural tourism)	· 농촌, 어촌, 산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 자연환경 및 전통, 문화체험, 자연환경의 중요성 체험에 중점 도·농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생태관광 (eco tourism)	· 관광객교육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 인식의 의미 · 생태계 균형유지 통한 지역환경 보전 · 개발과 보전 균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실현
지속가능한 관광 (sustainable tourism)	· 생태계보존, 생물의 다양성, 관광자원 고유성 유지목적 · 경제적·사회적·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형태로 자원 관리 ·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주요대안으로 등장 ·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보전증진과 관광객, 지역사회의 욕구충족

<자료> 이경모, SIT 미려관광의 대안모색, 대왕사, 2005, p.279 참조 논자 재작성



<자료> 논자 작성

〈그림 1〉 슬로우 관광의 구성요소

2. 슬로우 관광의 효과

슬로우 관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 이외에도 슬로우 관광에 참여하는 여행자의 측면과 여행을 주최하는 지자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슬로우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를 살펴보면 슬로우 관광을 주최하는 지역사회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전통음식, 토산품 및 특산품과 같은 지역문화와 전통을 같은 지역에서 방문자에게 홍보하며 공유하는 지역성과 전통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시설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방문자로 하여금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 최근 지구촌의 사회적 이슈중 하나인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관광과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슬로우 관광에 참여하는 여행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걷기를 통한 산소섭취량의 증가로 혈액순환의 개선, 관절노화의 예방, 체내 에너지 활용 증가로 인한 면역기능 증가와 비만, 당뇨, 우울증과 같은 현대병 및 각종 성인병 예방으로 심신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한 분산된 지역관광자원을 동일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외래관광객의 유

인력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슬로우 관광 관련 연구는 ‘fast’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생활에 반대된 개념인 ‘slow’, 즉 ‘느리게 살기’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부터 서서히 도입되었으며 2005년부터 시작되어 학자들간에 미미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본격적인 슬로우 관광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슬로우 관광 관련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오길창, 이기종이 ‘여가만족이 웰빙태도, 웰빙지향태도, 웰네스 추구성향에 미치는 영향관계라는 연구’를 통하여 주로 여행과 관광경험이 여행자들의 심리적 웰빙,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행경험과 심리적 웰빙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6] 2002년 김윤희의 연구에서는 느리게 살기운동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맥도널드 햄버거의 등장으로 인하여 fast food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미각의 즐거움과 전통음식의 보존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탈리아의 slow food 운동과 주생활에서의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slow city 운동, 즉, 자동차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활용하며 경음기 사용 금지 및 보행자 구역 확대 등 생활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운동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환경 친화적인 소비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1]. 신중목, 손대현, 장희정은 (2005) ‘슬로우 무브먼트컨셉 도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이탈리아의 그레베라는 마을의 사례를 예를 들며 느리게 살기 운동과 농촌관광의 접목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농촌관광에 슬로우 무브먼트컨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슬로우 커뮤니티의 농촌관광 발생 이익이 지역산업의 기반이 되어야하며 농촌지역에서 겪게 되는 물리적 불편함을 체험상품화 하는 역발상의 필요, 지역 브랜드 개발, 국내의 연계마케팅, 단계적 시장 확대,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슬로우 시티 인식 필요,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며 느리게 살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첫째, 산업화,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빠른 속도의 생활리듬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인간의 상실감, 둘째, 사회라는 테두리내에서의 개인화로 인해 심리적 소외감, 즉 군중속의 고독으로 인해 예전사회로의 회귀를 갈망하게 된 점, 셋째,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 넷째, 국제교류 및 무역과 지구촌화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5]. Mayor(2006)는 독일의 Waldkirch와 Hersbruck 두 곳의 슬로우 시티를 대상으로 지역자원과 경제,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의 대안을 연구하였다[10]. 신명석, 서정태(2007)는 ‘슬로우 투어리즘의 전망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패스트 푸드(fast food)의 반대개념에서 출발한 슬로우 푸드의 개념이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를 거치며 농촌관광의 한 부분인 슬로우 관광에 이르게 되었으며 슬로우 투어리즘의 개념이 지역전통음식 및 먹거리를 포함한 슬로우 푸드와 농촌고유문화체험거리인 볼거리, 즐길거리를 포함하는 농촌관광의 개념이 합쳐져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포함하는 슬로우 투어리즘이라고 주장하였다[4]. 그 외 박경문 외(2008)의 연구에서는 국내 슬로우시티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민과 지자체, 한국치마슬로우위원회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2] 백두주(2008)는 전남 장흥군의 슬로우 시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3]. 장희정(2009)은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 슬로우관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슬로우 시티 담양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관광행태와 만족도를 분석한 바 있다[8].

Ⅲ. 제주올레투어와 걷기여행 코스 현황

1. 제주 올레투어 코스 구성

제주 올레에서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또는 ‘자기집 마당에서 마을의 거리길로 들고나는 진입로’의 뜻이며 “제주도에 올레?”와 발음이 유사해서 제주로 오기를 권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고 한다. 제주 올레는 창시자인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여행중에 만남 여행자로부터 얻은 영감으로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에 사니아고와 같은 여행코스를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한다. 2007년에 9월 8일 제1코스를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코스를 연장 개발하여 2009년 10월 현재 1-14코스, 총 16개 코스를 개발하여 총 260km를 개장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제 15코스를 개장할 예정이다[21]. 제주 올레투어 코스는 제주도의 동쪽 끝인 성산일출봉 근처의 시흥초등학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주로 해안도로나 바닷가 길, 또는 오름 등을 주변으로 16개 코스가 계속 이어져 제주도 남부를 종주하게 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전설 또는 설화 등의 스토리텔링 자원을 개발하여 여행에 대한 의의를 부가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16개 코스의 평균 거리는 대체로 16km이며 가장 짧은 코스는 8.81km(9코스)이고 가장 긴 코스는 23km(4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역 명소를 따라 걷는 야간

올레코스 7개 코스를 개발하여 야간 올레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13].

제주의 올레투어가 여행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걷기여행을 위주로 하며 자연환경을 직접 접하며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인 여행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주로 직접 걷기를 통하여 오감으로 여행지를 탐험하는 면에서 관광유형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 제주 올레 걷기여행 구성요소

20세기 후반기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 등장한 슬로우 관광은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주민의 복지, 자연환경의 보전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생태계와 문화를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광활동의 결합으로 자연 그대로의 자연 자원 활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 관광상품은 대부분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생산되는 상품으로서 관광상품관련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 관광상품의 경우 관광지과 관광상품의 원로나 부품에 해당하는 부품공급자들은 주로 운송교통기관, 숙박업

체, 음식점, 관광활동에 필요한 편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관광편의점, 관광정보 등으로 관광상품이 구성되고 관광상품의 특성별, 주제별 그 구성요소가 약간씩 차이날 수 있다. 제주올레투어와 같은 슬로우관광상품의 경우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관광지를 관광객이 주로 걷기를 통하여 관광 자원과 지역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며 관광행동을 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자연자원과 지역성을 살린 역사, 문화자원, 관광객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 관광의 의의를 일깨워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연출력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올레투어의 주요구성요소로는 첫째, 자연중심의 자연사 탐방과 같은 자연관광이 주요구성요소이며 둘째, 장기적인 슬로우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 관광사업자간의 공동연계작업을 위한 슬로우 걷기투어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 셋째,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며 자연자원의 소비 또한 최소화한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넷째, 제주올레투어를 통한 지역민의 고용 및 이익창출을 시도하여 지역민의 만족 등이 필요한 요소들이다.

〈표 2〉 세계의 슬로우 시티(2009년도 현재)

국가	도시명
이탈리아(63)	아비아테그라스, 아쿠아라나, 아쿠아펜덴테, 아말피, 아메리아, 바르가, 보르고 발 디 타로, 브라, 카이아조, 카스텔 산피에트로 테메, 카스텔누오보 네 몬티, 그레베 인 키안티 등
독일(5)	슈바르젠부르그, 발트릭, 위버링겐, 워딩하우젠, 비르스버그
영국(8)	루드로, 아일섬, 디스, 윈체스터, 캔터베리, 퍼스, 토드네스, 킨로스
노르웨이(3)	손드칼, 레방게르, 아이드트코이
폴란드(4)	레스젤, 비스쿠피스, 비스치네크, 리드바르크, 바르민스키
포르투갈(4)	타비라, 라고스, 사오, 브라, 실베
스페인(8)	몽기아, 팔스, 팔라푸르젤, 베구르, 비가스토르, 레케이티오, 루비에로스 드모라, 포조 알콘
호주(2)	굴와, 카롬바

뉴질랜드(1)	마타카나
벨기에(3)	실리, 레나, 에딩겐
스웨덴(1)	팔코핑
덴마크(1)	스벤디보르그
오스트리아(1)	엔스
네델란드(1)	미텐 델프랜드
대한민국(5)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장흥군, 경남 하동군, 충남 예산군

<자료> www.cittaslow.kr 참조 논자작성

3. 제주올레투어 코스 내용

〈표 3〉 제주올레코스 내용

코스 명	총 길이 및 소요시간	제주올레코스 경로
1	총 15km, 5~6시간	시흥초등학교-말미오름-알오름-중산간도로-종달리 회관-목화휴게소-성산갑문-광치기해변
1-1	총 16.1km, 4~5시간	천진항-쇠물통 언덕-서천진동-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하우목동항-오봉리 주흥동 사거리-답다니탑-하고수동 해수욕장-비양도 입구-조일리 영일동-검멀래 해수욕장-망동산-꽃양귀비 군락지-우도봉정상-돌간이-천진항
2	총 17.2km, 5~6시간	광치기 해변-저수지-방조제입구-식산봉-오조리 성터입구-성산하수종말처리장-고성윗마을-대수산봉 입구-대수산봉 옛 분화구-대수산봉 정상-대수산봉 아래 공동묘지-혼인지-정한수터-온평조교-백년해로나무-우물터-온평포구
3	총 22km, 6~7시간	온평포구-온평도넛밭(옛날등대)-중산간올레-난산리-통오름-독자봉-삼달리-김영갑갤러리 두모악-신평리-신평, 신천 바다목장올레-신천리 마을올레-하천리 배고픈다리-표선1,2백사장-당케포구
4	총 23km, 6~7시간	표선 당케포구 잔디광장-방애동산-해비치 호텔&리조트 앞-갯늘-거우개-흰동산-가마리개-가마리 해녀올레-멀개-가는개-토산 바다산책로-토산새동네-망오름-거슴새미-영천사(노단새미)-송천 삼석교-태흥 2리 해안도로-햇살좋은 섬터-남원 해안길-남원포구
5	총 15km, 5~6시간	남원포구-큰엉 경승지 산책로-신그물-동백나무 군락지-위미항 조배머들코지-넙빌레-공천포 검은모래사장-망장포구-예촌망-효돈천-쇠소깍
6	총 14.4km, 4시간 30분~5시간	쇠소깍-소금막-제지기오름-보목항구-구두미포구-서귀포 보목하수처리장-서귀포KAL호텔-파라다이스호텔-소정방폭포/소라의 성-서귀포초등학교-이중섭 화백 거주지-솔동산 사거리-천지연 기정길-천지연폭포 생태공원-남성리 마을회관 앞 공원-남성리 삼거리-삼매봉-외돌개 찾집 솔빛바다
7	총 15.1km, 4~5시간	외돌개-돔배낭길-펜션단지길-호근동 하수종말처리장-속골-수봉로-법환포구-두머니물-일강정 바닷올레(서건도)-제주풍림리조트-강정마을 올레-강정포구-알강정-월평포구

7-1	총 15.6km, 4~5시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하영 논수산-월산동-영포폭포-고근산 입구-고근산 뒷면-서호마을-하논분화구 입구-삼매봉 입구-외돌개
8	총 17.6km, 5시간~5시간 30분	월평포구-굿당 산책로-마늘밭 입구-대포포구-시에스호텔-배릿내오름-돌고래쇼장-중문해수욕장-하얏트호텔 산책로-존모살 해안-해병대길-색달 하수종말처리장-열리 해안길-논짓물-동난드르-말 소낭밭 삼거리-하예 해안가-대평포구
9	총 8.81km, 3~4시간	대평포구-박수덕-물질-정낭-기정길-볼레낭길-봉수대-황개천 입구 동산-화순선사유적지-진모르 동산-가세기 마을올레(안덕계곡)-화순 굴농장길-화순항 화순선주협회사무실
10	총 15.5km, 4~5시간	화순항 화순선주협회사무실-화순해수욕장-퇴적암 지대-사구언덕-산방산 옆 해안-용머리 해안-산방연대-산방산 입구-하멜상선전시관-설금바당-사계포구-사계 해안체육공원-사계 화석 발견지-마라도 유람선 선착장-송악산 입구-송악산 정상-송악산 소나무숲-말 방목장-알뜨르 비행장 해안도로-하모해수욕장-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
11	총 21.5km, 6~7시간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셋알오름-백조일손모 갈림길-이교동 상모리 마을 입구-모슬봉 입구-정낭주 마리아 묘-신평마을 입구-곶자왓 입구-곶자왓 출구-인향동 마을 입구-무릉2리 제주 자연생태문화 체험골
12	총 17.6km, 5~6시간	무릉2리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평지교회-신도연못-녹낭봉-(구)신도초교-고인돌-도원회집-신도 앞 바다-수월봉-영알길-자구내포구-당산봉-생이기정 바당길-용수포구(절부암)
13	총 15.3km, 4~5시간	용수포구(절부암)-충혼묘지 사거리-복원된 밭길-용수저수지 입구-특전사 숲길 입구-고목 숲길-고사리 숲길-낙천리 아홉곳 마을-낙천갯길-용선달리-뒷동산 아리랑길-저지오름 정상-저지마을회관
14	총 19.3km, 6~7시간	저지마을회관-저지밭길-나눔허브계약입구-나눔허브계약 쉼터-저지갯길-큰소낭 숲길-삼거리-오시록헌 농로-월림갯길-굴렁진 숲길-야자나무 삼거리-선인장밭 숲길-무명천 산책길1-월령숲길-무명천 산책길2-무명천 산책길3-월령해안 입구-월령포구-금능등대-금능포구-금능해수욕장-협재해수욕장-협재포구-용포포구-국립폐류육종센터-한림항 비양도 도항선 선착장
*야간올레투어	구간별 10~40km	제1코스~5코스: 천지연광장 출발하여 서귀포항 새연교 제6,7코스: 제주컨벤션센터 출발하여 돌아오는 코스

<자료> www.jeuolle.org, 서울신문, 2009.10.30 참조 논자 작성

4. 제주 올레투어 효과 및 관광객 동향 특성

2007년 제주 올레투어가 개장된 이래 참가한 여행자를 기준으로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07년 올레투어 참가객은 3,000여명에서 2008년에는 3만여명으로 전년대비 약 1,00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9년 10월 현재 12만 6,000여명이 참가

하여 전년대비 약 4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제적 누적효과 약 100억여원 추정하고 있다[16]. 제주관광공사가 2009년 5월에 제주를 방문한 813명의 내국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나타난 2009년 상반기 제주관광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도올레투어 관광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79명이

참여하여 1.3%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가장 인상 깊은 제주관광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52명이 올레투어를 선택, 9.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9]. 한편 제주올레투어의 가장 큰 성과를 평가한다면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환경관광, 녹색관광등의 개념을 아우르는 관광을 관광객이 적극적으로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관광유형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며 2009년 올레코스 참가자의 제주 서귀포시 숙박률이 평균 84.7%로 나타나 [16] 경유지에서 체류지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자연자원의 수용력을 감안한 방문자 통제부재, 방문자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음식점등 편의시설 연계성의 결여로 인한 불편함 및 제주올레코스 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자의 소유권주장에 의한 갈등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5. 기타 걷기여행 코스 개발 현황

1) 국내 걷기여행 현황

(1) 지리산 둘레길 & 언저리길

지리산 둘레길은 사단법인 ‘숲길’이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장거리 도보여행길로 한국형 트레일의 전형을 만들고 길을 통한 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느림의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하며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경계길을 따라 2011년까지 약 300km의 거리를 순환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도보다 용이한 접근성과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의 도와 남원시, 구례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등 5개의 시군, 16개 읍면의 80여개마을을 연계하는 코스로 다양한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 지리산의 명소를 여유있게 천천히 음미하며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은 운봉고원과 랫천, 등구재와 빨치산루트 등 5개 구간 약 70km에 이르며 지리산 언저리길은 뱀사골, 벽소령, 청학동, 피아골 등 24개 코스로 총 263km가 개장될 예정이다[12].

(2) 동해안 바우길

제주올레투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원도의 백두대간과 동해안의 해안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걷기여행코스인 ‘바우길’이 개장된다. 강릉시가 주최가 되어 강원도민을 부르는 ‘갑자바우’와 그리스 바빌로니아 시화에서 나오는 건강의 여신 ‘바우’에서 명명된 바우길은 백두대간풍력발전단지부터 대관령옛길, 명주군왕릉에서 남향진, 학산마을, 안인항, 정동항을 잇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바우길은 강원도 출신 소설가 이순원과 같이 코스별 스토리텔링 작업을 접목하여 여행코스별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본연의 자연친화적 걷기여행길을 표방하고 있다.

(3) 강화 나들길

순 우리말 ‘나들이’에서 유래하였으며 1코스인 역사문화 심도(강화의 옛이름)로 가는 길과 2코스인 용당돈대, 화도돈대, 초지진 등을 거치는 바닷가 돈대길, 3코스인 삼랑성, 전등사, 석릉, 가릉, 정제두 묘 등 고려왕릉 길로 구성되어 있다.

(4) 군산 구불길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개통에 대비한 관광상품으로 10개마을 4개코스로 구성되었으며 각 15~20km 거리이다. 금강, 오성산, 망해산, 대야평야, 옥산저수지와 숲길 등의 자연환경을 접하며 여행중 식사 또는 농가체험을 포함한다. 현재 구불길에 있는 마을 중 10개 마을은 건물벽면에 그림이나 타일벽화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예술적 미감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

(5) 서울 종로 고샅길 & 늠내길

서울 종로구의 고샅길은 종로의 역사문화 기행코스의 하나로 전통문화와 역사, 서민의 일상성을 소재로 골목길을 연계하여 20여개의 코스를 개발한 것이며 코스별 특성에 따라 생태문화, 전통문화, 녹색 웰빙문화코스로 각각 구분하여 관련된 이야기소재를 찾아 스토리텔링 작업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시흥의 늠내길은 시흥이

늠름한 기상과 은근한 자연미의 도시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고구려시대의 지명인 ‘양벌노’의 당시 표현에서 유래되었으며 숲길, 갯고랑길, 해안길, 물길, 들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기타

제주 올레투어의 사례를 통하여 걷기여행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여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되면서 각 지역 지자체별로 걷기여행상품 기획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 중심길 7곳을 선정 발표하였는데 ‘소백산 자락길’, ‘강화 들레길’, ‘삼남대로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영덕과 삼척구간 동해 트레일’,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고인돌과 질마재를 따라 100리길’, ‘여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 등을 발표하였으며 [18] 강원도의 낭만가도, 서울시의 숲길, 전북 진안군과 변산의 마실길, 무의도 올레길 등이 있다.

〈표 4〉 국내 슬로우 관광 걷기여행 코스 현황

걷기여행	명칭 유래	여행코스 특성
제주올레길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의미와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이라는 제주어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2007년 9월부터 14개코스 개발, 총 260km, 2009년 12월 제 15코스 추가 개장 예정
지리산	둘레길	남원시 주천에서 운봉, 인월까지 2009년 8월 현재 5개구간 70여km개통. 지리산국립공원경계를 따라 2011년까지 총 300km 순환형 조성예정
	언저리길	‘주변’이라는 순 우리말에서 유래
동해안 바우길	강원도 사람을 일컫는 ‘감자바우’와 바발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건강의 여신 ‘Bau’에서 유래	대관령 옛길, 명주군왕릉, 남향진, 학산마을, 안인항, 정동항을 잇는 트레킹 코스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양떼목장 옆길, 강릉 단오제 주신을 모신 국사성황당 등 강원도 백두대간과 동해를 잇는 10개 명소 조성

강화도 나들길	순 우리말 ‘나들이’에서 유래	1코스: 역사문화 심도(강화의 옛이름)로 가는 길 2코스: 용당돈대, 화도돈대, 초지진 등을 거치는 바닷가 돈대길 3코스: 삼랑성, 전등사, 석릉, 가릉, 정제두 묘 등 고려왕릉 길
군산 구불길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여유, 자유, 풍요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여행길	구불1길: 비단강길로 금강이 주제 구불2길: 햇빛길로 망해산이 주제 구불3길: 큰들길로 대야들이 주제 구불4길: 구슬뫼길로 옥산저수지가 주제 코스여행 중 식사 또는 농가체험 포함, 노후된 건물에 미술작업병행
서울	종로 고살길	시골의 좁은 골목이라는 순 우리말 종로구 지역 내 숨어있는 고살길 20여곳을 발굴하여 관광코스로 개발 예정, 600여년의 전통문화와 서민들의 삶을 주제로 함. 교남동 역사문화코스, 부암동 도롱농생태문화코스, 평창동 녹색윙빙단지코스, 북촌과 가회동의 전통한옥문화코스 등
	시흥 늪내길	고구려시대 지명 양벌노의 당시 표현 늪내에서 유래, 산자락 숲길, 갯고랑주변을 걷는 갯골길, 바다와 노을감상이 가능한 해안길, 논과 수로사이의 물길, 저수지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들길 등 수도권 최장거리 도보 길, 연장거리 13km, 소요시간 5-6시간
기타 (현재 추진 중)	자치단체의 지역성을 살린 걷기코스 및 조성 예정 사업	서울시: 산길 137km코스, 한강변 걷기 좋은 코스 7곳 송파구, 북촌 올레길 등 강원도: 동해안 관동팔경 400km코스, 동해안 낭만가도 240km코스 경기도 남양주시: 산, 강변 100km코스 등 전북: 진안군 100여개 마을, 40여개 고개를 지나는 열여섯구간, 214km 마실길, 부안 번산 마실길, 무의도 올레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 경북: 영주 선비촌과 죽계별곡의 산실 죽계계곡과 소수서원 소백산 자락길, 안동의 퇴계 오솔길, 영덕 블루로드 등 전남: 영광굴비고장 영광과 천일염길, 해수 짬질길의 남도 갯길 6300리, 정약용의 남도유배길 기타: 동해 트레일, 고인돌과 질마재를 따라 100리길, 여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 등

<자료> www.jejusori.net, www.momonews.com, www.seoul.co.kr, www.jejuolle.org, http://tour.gunsan.go.kr, 스포츠조선 2009.10.5 뉴스, YTN 2009년 10월 5일 뉴스, 2009.10.19 세계일보, 지리산둘레길&언저리길 걷기여행의 내용 참조 논자 작성

2) 외국 슬로우 관광 걷기여행 사례

(1)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북서부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제자중 한명인 성 야콥의 유해가 묻힌 까미노 데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도보순례길을 의미하며 산티아고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명인 성 야콥의 유해가 발견된 성지로서 로마와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성지이며 약 900여년간

기독교 성지순례코스로서 이용되어 왔으며[19] 유네스코에 의하여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의 한곳이다. 특히 이곳은 소설 ‘연금술사’와 ‘순례자’, ‘11분’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방향을 마치고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작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여정을 시작하여 코엘료 문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그의 소설 ‘연금술사’의 배경임이 알려져 순례길을 통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길의 의미로 대중화되

어 걷기여행의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올레투어 또한 올레투어의 개발자가 산티에고 여행에 참가한 후 올레투어를 개발하였다하여 걷기여행의 본모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 일본 시코쿠 오펜로 사찰순례

일본 혼슈(本州)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시코쿠 산맥에 의하여 남북으로 나뉜다. 북부는 농업, 남쪽은 어업·농업이 주산업이며 면적은 1만 8,000km²이며 시코쿠 섬에 있는 도쿠시마(徳島), 가가와(香川), 에히메(愛媛), 고치(高知)의 네 현(縣)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26].

시코쿠는 과거 역사에서 조정에서 좌천된 고관들의 귀양지의 역할을 해왔으며 자연적인 환경이 평야가 적고 토양이 척박하며 태풍이 잦아 농사짓기가 힘든 변방의 섬으로 굴농사가 유명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주도과 역사적으로나 자연환경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으며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 코보대사가 1,000여년 전에 제창한 불교사찰순례코스로서 순례여행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코쿠 섬에 위치한 사찰 88개를 번호를 지정하여 1번에서 88번까지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하여 아름다운 절경과 절벽길 등을 여행코스를 통하여 여행자 스스로 사찰을 차례로 이동하여 사찰 도착후 남경소에서 사찰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도장과 목서를 받아 88곳의 사찰을 모두 거치면 소원하나가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일본인에게는 대표적 종료 순례코스인 일생의 중요 수행덕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외국 여행자를 위한 오펜로 순례코스인 일종의 패키지 상품으로 시코쿠 근처 공항에 여행자가 도착하여 일정의 순례여행참가비를 지불하고 오펜로 여행자를 상징하는 복장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지

역주민으로 하여금 그들이 순례여행자임을 알림으로써 여행자에게 친절한 안내와 음식 등을 제공하게 하여 지역주민이 오펜로 여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행자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사찰 또는 지역을 안내받아 여행하게 되며 여행이 끝나면 사찰의 승려가 붓글씨로 순례를 완료했다는 순례증서를 써준다[21].

IV. 제언 및 결론

제주 올레투어는 건강한 삶의 질을 인생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산업사회의 분주한 생활에서 초래된 각종 문제점 및 폐해를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느리게 살기 운동에서 비롯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관광개념이다. 걷기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 및 관광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걷기와 관광을 결합한 걷기여행이 2007년부터 제주도로부터 ‘올레투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제주 올레투어와 유사한 걷기여행코스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걷기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걷기투어는 느리게 살기운동이 관광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슬로우 관광이라는 신개념을 만들어낸 결과이며 자연자원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하며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문화를 관광객과 지역민이 공유하며 관광객이 직접 체험한다는 면에서 예전의 대량관광의 개념과는 차별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올레투어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파생된 걷기여행코스를 분석하고 슬로우 관광으로서 제주 올레투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제주올레투어의 목적을 유지하며 방문하는 관광객의 삶의 질과 건강에 궁

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만족을 창출할 수 있는 제주올레코스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제주올레투어의 주요구성요소인 자연관광개발의 생태시스템을 도입하여 생태자원의 적정수용력을 감안한 올레코스 개발로써 방문자의 숫자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걷기여행의 코스개발 면에서 볼 때 슬로우 관광의 생태계조사를 통한 자원파악이 필요하며 특수지역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관광객 수용을 통하여 관광객 이용한계와 생태계 허용 한계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제주 올레투어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볼거리와 먹거리 숙박, 교통과 같은 관광객 편의시설의 관광시설 지역을 설정하여 관광객이 관광지의 주요 자원으로부터 떨어져있는 보전적 개발방식보다는 현재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지역의 시설물을 관광시설로 활용하여 관광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개발에서 오는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지에서 제주 올레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은 숙박과 식사를 대부분 필요로 하며 여행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원할 수 있으나 제주올레투어의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상업화에 대한 우려 및 경제성과 관련되는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보다는 제주 올레투어의 목적과 취지에 알맞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숙박시설은 B&B, 농장민박, 자연경관 보존상태 야영장, 지자체 운영 숙박시설, 통나무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개발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슬로우 관광이란 자연의 보전을 바탕으로 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창출과 관광객의 지역문화체험을 최대한 고려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 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성 확보, 지역문화체험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주민 요구와 의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고 올레투어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업무를 상호 분담한다면 발생 가능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며 개발자 측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협조 하에 지역문화체험 제공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관련기관, 관광사업자간의 공동 연계작업을 위한 제주올레투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및 합리적 정책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윤희, “최근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 *한국복식학회*, 제52권 제6호(2002).
- [2] 박경문, 조영태, 최상희, 장인식, “국내슬로시티 발전방안연구”, *지리학 연구*, 제42권 제2호(2008), pp.237-253.
- [3] 백두주,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전남 장흥군의 슬로시티지정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0권 제4호(2008), pp. 111-140.
- [4] 신명석, 서정태, “슬로우 투어리즘의 전망과 과제”, *관광연구저널* 제21권 제3호(2007), p.24.
- [5] 신중목, 손대현, 장희정, “슬로우 무브먼트 컨셉 도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17호(2005).
- [6] 오길창, 이기중, “여가만족이 웰빙태도, 웰빙지향태도, 웰네스 추구성향에 미치는 영향 관계”, *관광연구*, 제24권 제1호(2009), p.206.
- [7] 이경모, SIT 미래관광의 대안모색, 대왕사, 2005,

- p.279.
- [8] 장희정,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서 슬로우관광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슬로시티 담양의 방문자 관광행태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관광농업연구*, 제16권 제2호(2009).
 - [9]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객추이, 2009.
 - [10] Mayor, H.P, Slow cities: “Sustainable places in a sad world”, *Journal of Urban Design*, 28(4), 2006, pp.321-334.
 - [11] 길을 찾는 사람들, 경기북부 걷기여행40, 황금시간, 2008.
 - [12] _____, 걷기여행코스 40, 황금시간, 2008.
 - [13] _____, 지리산둘레길&언저리길 걷기여행 5, 황금시간, 2009.
 - [14] 서울신문, 2009.10.30
 - [15] 세계일보, 2009.10.19
 - [16] 스포츠조선, 2009.10.5
 - [17] YTN 2009년 10월 5일
 - [18] 연합뉴스, 2009.7.10
 - [19] 한국일보, 2009.10.7
 - [20] www.cittaslow.kr
 - [21] www.dt.co.kr
 - [22] www.jejusori.net
 - [23] www.jejuolle.org
 - [24] www.momonews.com
 - [25] www.seoul.co.kr
 - [26] www.shikoku.co.kr
 - [27] http://tour.gunsan.go.kr

접수일	2009. 11. 21
게재확정일	2010. 02. 05